

# 김수영의 「풀」에 나타난 음양적(陰陽的) 상상력

이 종 목\*

차 례

I. 서론	2. 제2연 - ‘분발(반발)’의 이미지- (陽)
II. 음양적(陰陽的) 상상력의 의미	
III. 「풀」에 나타난 음양적(陰陽的) 상상력	3. 제3연 - ‘교감(조화)’의 이미지- (陰+陽)
1. 제1연 - ‘억압’의 이미지 - (陰)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김수영의 시 「풀」에 나타난 음양(陰陽)적 상상력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김수영 시의 특징을 해명하기 위한 각축이 「풀」을 통해 개진되었다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반복적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풀’의 활동은 음양(陰陽)의 사이클을 닮음으로써 작품자체가 ‘음양적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세계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풀」은 부사와 동사에서 드러나는 변역(變易)과 더불어 풀↔바람, 눕다↔일어나다, 울다↔웃다 등에서 나타나는 동사

\* 영남대학교 강사

의 역동성은 음양(陰陽)의 대립적 운동성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양상과 동일한 것이다.

김수영의 시 「풀」에서 음양(陰陽)적 상상력의 핵심은 ‘놀린 만큼 용출하는 木(풀)의 동정(動靜)운동’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발전적 변화를 일으킬 때 방해요소인 ‘억압’과 전진하려는 모습인 ‘분발(반발)’이 모순 → 대립 → 조화를 반복하는 동정(動靜)운동을 한다. 김수영의 「풀」에서 보이는 동정(動靜)운동은, 바람(陽)은 풀(陰)을 만나기 위해 하강(억압)하고 풀(陰)은 바람(陽)을 만나기 위해 상승(분발)하는 가운데 교감(조화)한다. 음양(陰陽)조화의 결과는, 새로운 탄생이 아니면 성장(발전)이다. 이는 ‘풀’의 운동성이 불러일으키는 생명감’의 원천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풀」에 투영된 음양(陰陽)적 상상력은 ‘억압’ - ‘분발(반발)’ - ‘교감(감응)’ 등 ‘풀’의 동정(動靜)운동 중에 생성되는 이미지를 통하여 실존적 존재의 성장 혹은 희망을 포착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화자의 시선이 줄곧 ‘풀’의 운동성을 응시함으로써 소묘적 회화성 속에 내재된 발화의 진실은 실존적인 존재의 성장(발전)을 통하여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임을 명료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적 관점은 「공자의 생활난」으로부터 시작된 김수영의 유가적 시창작 태도가 마지막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는 모더니즘 시인이라 불리는 김수영이 전통을 부정하는 시인이 아닌 전통 계승적인 창작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김수영의 문학은 물론, 한국현대시사에서 갖는 의미도 적지 않다.

주제어 : 음양(陰陽)적 상상력, 음양오행, 억압, 분발(반발), 교감(감응)

## I. 서론

김수영은 많은 작품을 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품인 「풀」의 시인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보니 김수영 시의 특징을 해명하기 위한 각축이 「풀」을 통해서 개진되었다 할 만큼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편의 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김수영의 「풀」은 ‘풀’과 ‘바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느냐 호혜적인 관계로 보느냐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둘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풀’을 ‘바람’에 저항하는 민중으로 설정하고 풀(민중)을 길긴 생명력의 담지자로 파악하였다.<sup>1)</sup> 그러나 황동규가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풀이 싫어할 리 없다”는 생물생태학적인 반론<sup>2)</sup>을 제기함으로써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김현은 풀밭에 서 있는 제3자의 체험이라고 함으로써 「풀」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sup>3)</sup> 유중호는 ‘풀밭의 시각적 즐거움<sup>4)</sup>’이라 하였으며, 백낙청은 ‘탁월한 무의식 시<sup>5)</sup>’라고 하였으며, 오세영은 인생론적 관점에서 「풀」은 ‘절망에 이른 존재가 단비를 통해 소생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sup>6)</sup> 이들은 「풀」에서 인생의 의미를 도출해낸

1) 풀을 민중으로 보는 학자

김춘수·박진환, 『한국의 문제시·명시 해설과 감상』, 자유지성사, 1998, 230~234쪽.

맹문제, 『한국민중시 문학사』, 박이정, 2001, 96쪽.

송승환, 『한국현대시 분석과 이해』, 우리문학사, 1997, 110~127쪽.

염무웅, 「김수영론」, 『김수영의 문학』, 황동규편, 민음사, 1983, 165쪽.

조병춘, 『한국현대시 평설』, 태학사, 1995, 443쪽.

한계전, 「김수영」, 『한국 현대시 해설』, 관동출판사, 1994, 126쪽.

2) 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문학과 지성사, 1979, 157쪽.

3) 김현, 「웃음의 체험」, 황동규 편, 앞의 책, 211쪽.

4) 유중호, 「시의 자유와 굴레」, 황동규 편, 같은 책, 257쪽.

5) 백낙청, 「참여시와 민족문제」, 황동규 편, 같은 책, 167쪽.

6) 오세영, 「우상의 가면을 벗겨라」, 『어문연구』, 2005, 봄, 155~172쪽.

으로써 ‘풀’과 ‘바람’이 호혜적인 관계라는 진척된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울고, 웃고, 눕고, 일어나는 ‘풀’의 동정(動靜)운동과 ~보다, 더, 빨리, 먼저, 늦게 등 부사의 의미 분석을 명쾌하게 조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시를 분석할 때, 시어의 의미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작가가 태어난 그 사회의 전통이나 사상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작(詩作)의 출발부터 「공자의 생활난」을 노래하던 김수영의 유가(儒家)적 시작태도는 초기의 일회적인 시도가 아니라 후기까지 일관되게 관철되는 자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의 시를 분석할 때는 직접적 상관성을 부정하거나 시사적 암시정도에 그치었으나<sup>8)</sup> 최동호가 논어의 안연편에 있는 ‘풀’과 김수영의 ‘풀’을 비교하면서 “동양의 시학이 김수영에 집약되었다”<sup>9)</sup>고 한 후부터 『논어』, 『맹자』, 『장자』와 관련지은 논의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공자가 진중하게 받았었다는 『역경』<sup>10)</sup>은 유가(儒家)의 대표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에서 경(經)으로는 으뜸이다. 『역경(易經)』<sup>11)</sup>에서 역

7) 신용목, 「시론으로서의 시, 김수영의 ‘공자의 생활난」, 『다시 읽는 김수영시』, 도서출판 작가, 2005 16쪽.

8) 성민엽, 「김수영의 「풀」과 『논어』, 『현대문학』 533, 1999. 66~79쪽.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 민음사, 2010.

9) 최동호, 「동양의 시학과 현대시: 유가철학과 김수영의 <풀>」, 『현대시』 10, 1999. 19~33쪽.

10) 《주역》은 상경(上經)·하경(下經) 및 십익(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익은 단전(彖傳) 상하, 상전(象傳) 상하, 계사전(繫辭傳) 상하,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 등 10편을 말한다.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신농씨(神農氏, 혹은 伏羲氏, 夏禹氏, 文王)가 64괘로 나누었으며, 문왕이 괘에 사(辭)를 붙여 《주역》이 이루어진 뒤에 그 아들周公(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어 완성되었고 이에 공자가 십익을 붙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11) 《역경(易經)》은 음(陰)과 양(陽)을 바탕으로 하는 효(爻)의 위치에 따라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占)치는 책이다. 아울러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만물이 생성하고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철학서이다. 초기의 점치는 책을 《주역(周

(易)이란 음양오행학(陰陽五行學)을 이르는 말이다. 역(易)은 = 변역(變易), 즉 ‘바뀐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변화는 자연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자연적인 현상을 노래하는 김수영의 시 「풀」을 자세히 살펴보면 눅고→울고→웃는 변역(變易)과 풀↔바람, 눅다↔일어나다, 울다↔웃다 등의 대립성과 동사의 역동성은 음양(陰陽)의 대립적 운동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양상과 동일한 모습이다. 문학작품은 작가가 태어난 그 사회의 산물이다.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든 생활철학일 뿐만 아니라 음양(陰陽)적 사유체계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사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기에 알맞은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김수영의 시 「풀」을 음양(陰陽)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함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김수영의 「풀」을 음양오행(陰陽五行)<sup>13)</sup>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 봄으로써 「풀」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자 한다. 「풀」을 음양(陰陽)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풀」에 나타난 시어의 대립성 혹은 동사의 운동성 때문이다.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가면 시어의 대립성이나 동사의 운동성이 불러일으키는 생명감의 원천에 대한 사상적 기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풀」과 「바람」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매우 오랫동안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음양(陰陽)적인 관점은 이 문제에 대해

易》이라하고, 후세에 철학·윤리의 사상이 보완된 것을 《역경》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데, 이 책이 음양에 관한 최고 수준의 해설서이다.

12) 하늘은 양, 땅은 음, 해는 양, 달은 음, 강한 것은 양, 약한 것은 음, 높은 것은 양, 낮은 것은 음 등 상대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양·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역의 원리이다. 달은 차면 다시 기울기 시작하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겨울이 오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그 원칙은 영원불변한 것이며, 이 원칙을 인간사에 적용시켜 비교·연구하면서 풀이한 것이 역이다.

13) 음양오행의 기원이나 형성과정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문헌상으로는 『서경(書經)』, 『예기(禮記)』, 『주역(周易)』등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음양오행 뒤에는 ~원리, ~론, ~설, ~사상 등의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의미부여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새로운 관점으로 논의하는 것인 만큼 「풀」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김수영의 대표작인 「풀」을 음양오행(陰陽五行)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봄으로써 「풀」이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작품이 지향하는 은유적 세계관은 무엇인지 등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김수영의 대표작인 「풀」을 좀 더 깊이 있게 혹은 새로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II. 음양적(陰陽的) 상상력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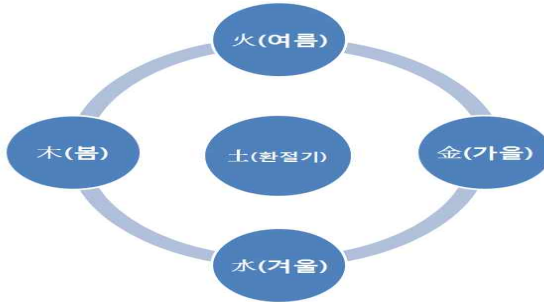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 지식,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든 생활철학이다.<sup>14)</sup> 학문적으로도 인문지리인 동시에 자연과학 철학이며 서양 사상이 가지는 분리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 학문이다.<sup>15)</sup> 때문에 학문은 물론, 인간의 운명이나 건강<sup>16)</sup> 등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문학에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이 깊숙이 자리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쓰여진

14) 한국적 우주관의 근원을 이루며 우리 민족의 사상적 원형의 바탕을 이루는 음양오행 사상은 오행(五行) 즉,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움직임으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과 생성소멸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생활사적으로는 관혼상제나, 민속·의복·주거·제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문적으로도 인문지리인 동시에 자연과학이며 철학으로서 서양 학문이 가지고 있는 분리적 성격을 극복하는 통합 학문이다. 고분의 벽화, 비석의 귀부(龜趺)·오경박사(五經博士)·역박사(易博士)·감은사지의 태극도형에서 볼 수 있듯 음양오행사상은 한국인의 정신과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해 있다.

15) 이정재, 「陰陽五行論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문화연구』 제7집, 2003, 187쪽.

16) 한의학에서 음양오행 사상은 약제처방과 환자치료의 근본이다. 장동순, 「五行이론의 科學性」, 『의림』 262, 2000, 14쪽.

문학작품을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근거하여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sup>17)</sup>



<그림 1>

음양오행의 논리는 자연 현상의 원리 혹은 작동의 방식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의 표리를 설명하는 데 유익한 체계이자 사유방식이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먼저 음양(陰陽)은 태양이 비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누어 인식되고 있다. 명암(明暗), 고저(高低), 장단(長短), 대소(大小), 동정(動靜), 강약(強弱), 상하(上下), 좌우(左右), 전후(前後), 열한(熱寒), 표리(表裏), 개폐(開閉), 산합(散合), 부침(浮沈), 원각(圓角), 조습(燥濕) 등, 상대적으로 밝고, 높고, 따뜻하고, 즐겁고, 동적인 것은 양(陽), 어둡고, 낮고, 춥고, 외롭고, 정적인 것은 음

17) 드물기는 하나 현대문학에서도 음양오행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있다.  
 김동환, 『김동리 소설의 상상력 연구 -음양오행사상의 시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9.  
 신 진, 「정지용 시의 색채(色彩) 이미지 고찰-음양오행을 통한 원형연구시론-」,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6집, 1982, 21쪽.  
 정효구, 「정지용의 시 '향수(鄉愁)와 음의 상상력」, 『한국시학연구』제 19호, 2007, 239쪽.  
 조선숙,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본 이상의 소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2.

(陰)으로 인식한다. 표면상 둘은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연구나 인식을 위해 설정해 놓은 개념일 뿐 실은 조화하는 관계이다. 오행(五行)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다섯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극즉반(極卽反)'의 원리에 따라 위의 <그림1>처럼 순환하며 성장(발전)한다.

<오행분류표>

陰陽	陽				中		陰			
五行	木		火		土		金		水	
음양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申	壬	癸
	나무	풀	태양	달	산	들	바위	보석	바닷물	샘물
五氣	태풍	동풍	더위		습기		건조		냉기	
방위	東		南		中央		西		北	
형상	시작		확산		안정		성숙		저장	
인생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계절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자음	ㄱ, ㅋ		ㄴ, ㄷ, ㄹ		ㅇ, ㅎ		ㅅ, ㅈ, ㅊ		ㅁ, ㅂ, ㅍ	
색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기체	산소		질소		규소		탄소		수소	
선천수	3, 8		2, 7		5, 10		4, 9		1, 6	
성질	발생,		절정		안정,		성숙		저장	
성격	仁		禮		信		義		智	

<그림 2>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위의 <그림2>에서처럼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크게는 음(陰)과 양(陽) 나누고 작게는 다섯 가지 요소로 분류한다. 이는 형이하학적인 의미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내부는 음적(陰的)인 면과 양적(陽的)인 면이 공존한다. 위의 <그림2>에서처럼 목(木)과 화(火)는 양(陽)이고, 금(金)과 수(水)는 음(陰)이고, 토(土)는 음(陰)과 양(陽) 중간이다. 오행(五行) 내부에서도 음(陰)과 양(陽)으로 분류된다.



김수영의 「풀」에서 ‘풀’과 ‘바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을 위해 가장 적당한 것은 음양(陰陽)적 사유방식이다. 음양의 사유체계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자연사와 인간사의 다양한 현상이 빚어내는 심층적인 면을 논리적으로 포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처럼 김수영의 시 「풀」에서 핵심 시어인 ‘풀’과, ‘바람’은 오행(五行)상으로 볼 때 둘 다 목(木)이므로 양(陽)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설정해 놓은 개념인 <오행분류표>를 보면, 목(木)은 갑목(甲木: 나무, 태풍)과 을목(乙木: 풀, 산들바람)으로 나누어진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개념은 절대적 혹은 고정된 것의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생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각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다. 때문에 ‘풀’과 ‘바람’은 양(陽)적인 면과 음(陰)적인 면이 공존하는 음중지양(陰中之陽)이지만 상대적으로 강하고, 높고, 동적인 ‘바람’은 양(陽)이고 약하고, 낮고, 정적인 ‘풀’은 음(陰)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인의 정신적 활동을 총칭하여 ‘음양(陰陽)적 상상력’이라 하고자 한다. ‘음양(陰陽)적 상상력’이란 위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순환운동, 직선운동, 상·하, 좌·우 운동을 하고 있는 음양(陰陽)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김수영의 「풀」은 기본적으로 음(陰)의 상상력이 주조를 형성하면서 부분적으로 양(陽)의 상상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어울리고 억압하고 분발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그 나름의 조정을 거듭하며 생명력의 기운을 창조해낸다. 따라서 김수영의 시 「풀」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이 기저를 이룬다는 전제 아래 시의 전체적인 형식과 세부적인 표현을 따라가며 각 구절을 분석하여야 한다.

### Ⅲ. 「풀」에 나타난 음양적(陰陽的) 상상력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상호 자생(自生)과 제약(制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켜 음양오행(陰陽五行) 운동이라고 한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변전하는 자연운동을 동정(動靜)운동이라 하는데 이것이 발전이다.<sup>18)</sup> 김수영의 「풀」은 표면적으로는 산들바람(동풍)에 흔들리는 ‘풀밭’의 풍경을 적절한 구도로 담아냄으로써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된 한 폭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듯하나, ‘풀’의 동정(動靜)운동 내면에 숨어 있는 은유적 세계관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풀’이 눕고, 울고, 웃는 풍경 속에 내재된 실존적인 삶의 고뇌에 대한 구명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에 의지해야 한다.

김수영의 「풀」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독백 형식으로 시적 언술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로 자연적인 현상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시어만 사용하였다는 점, 명사, 동사, 부사가 대립 혹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시적 주체와 대상이 대립되어 있다는 점 등은 여타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이다. 「풀」에서 사용된 시어는 ‘풀’, ‘바람’, ‘비’, ‘날’, ‘풀뿌리’ 등 5개의 명사와 두 쌍의 동사가 전부지만, 시적 주체인 ‘풀’과 ‘바람’의 교통과 융합과정을 통해 펼쳐지는 모습은 음양(陰陽)운동의 전개양상과 일치하고 있다. 음(陰)과 양(陽)은 서로 ‘억압’하고 ‘분발(반발)’하는 대립의 법칙이 늘 작용하는데 이를 음양(陰陽)의 대립과 제약의 법칙이라 한다.

18) 음양과 오행은 독립적이면서 또한 의존적이다. 음양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대조하여 그 특성(特性)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오행(五行)은 사물의 내적(內的)인 운동 즉, 역동성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음(陰) 또는 양(陽)이라고 하였을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그 사물이 현재 드러내는 상태일 뿐 원리가 아니다. 이는 음양이 갖는 정적(靜的)이고 평면적(平面的) 특성 때문이다. 역동성은 오행으로 넘겨주고 음양은 현상을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수영의 「풀」은 핵심시어인 ‘풀’과 ‘바람’의 운동을 통하여 대립과 제약의 법칙을 통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발전적 변화를 일으킬 때 방해요소인 ‘억압’과 전진요소인 ‘분발’을 통하여 모순→대립→조화를 반복하는 음양(陰陽)운동을 한다. 김수영의 「풀」에서 양(陽)인 ‘바람’은 음(陰)인 ‘풀’을 만나기 위해 하강함으로써 ‘억압’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음(陰)인 ‘풀’은 양(陽)인 ‘바람’을 만나기 위해 상승함으로써 ‘분발(반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마침내 조화함으로써 ‘교감’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풀’과 ‘바람’은 억압하고 분발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어울리고 상생하는, 나름의 조정을 거듭함으로써 ‘풀’의 생명력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사실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으로 접근해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음양(陰陽)적 상상력은 김수영의 「풀」에서 해석상의 난제인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풀이, 움직임의 동력이 되는 바람보다 행위가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억압’, ‘분발’, ‘교감’의 이미지로 대별한 후, 각 연과 각 행의 세부적인 표현을 따라가며 자세하게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명해 보도록 하겠다.

### 1. 제1연 ‘억압’의 이미지-(陰)

김수영의 「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때론 울고, 웃고, 누웠다. 일어났다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풀밭’의 풍경 속에 생명성을 불어 넣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이다. ‘풀밭’이라는 시각적인 체험 이면에 숨어 있는 화자의 은유적 세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가 보아야 한다. 「풀」의 제 1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풍에 나부껴 흔들리는 ‘풀’의 동정(動靜)운동에서 양(陽)인 ‘바람’은 음(陰)인 ‘풀’을 만나기 위해 하강함으로써 ‘억압’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 억압(抑壓)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어떤 힘에 눌린다는 의미이다. ‘풀’과 ‘바

람'은 오행(五行)으로 볼 때 목(木)이다. 오행분류표에서처럼 목(木)은 계절은 봄이고, 방위는 동쪽이고 색깔은 푸른색이고 성품은 어질다. 목(木)은 눌리면 내부에 축적된 음(陰)의 반발력이 강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목(木)의 성질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억압받을수록 반발력이 강해지는 스프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봄을 나타내는 영어 스프링(spring)에도 목(木)의 성질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한 개념이긴 하지만 목(木)은 다시 나무(甲木)와 풀(乙木)로 나누어지는데 을목(乙木)은 끈질긴 생명력의 기운을 가지는 것이 특성이다. 이는 많은 논자들이 주장한 풀 = 민중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작품을 읽고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발화의 진실을 「풀」에 투영된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 조망해 보기로 한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 의 제1연

6행으로 이루어진 「풀」의 제1연에서는 양(陽)인 ‘바람’이 음(陰)인 ‘풀’을 만나기 위해 하강함으로써 ‘억압’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 ‘억압’의 이미지는 첫 행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첫 행에서 풀이 눕는 이유는 바람에 눌리어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눌러서 억압받는 풀의 나약함에만 초점을 두고 응시하면 ‘바람’과 ‘풀’은 적대적인 관계처럼 느껴진다. ‘바람’과 ‘풀’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2행에 제시되어 있는 명사 ‘동풍’과 부사 ‘나부껴’ 라는 시어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풍’은 기분 좋게 살랑거리는 정도의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고 부사 ‘나부

겨’는 기분 좋게 살랑거리는 정도의 흔들리는 모양을 말하는 단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풀이 싫어할 리 없다”는 황동규 이후, 많은 논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명되어 왔었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왜 우는지, 왜 흐린 날 우는지, 첫 행에서 누웠는데 마지막 행에서 왜 다시 눕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무력하고 나약한 ‘풀(민중)’의 모습이라 하면 설득력을 얻지만 ‘풀’과 ‘바람’을 적대적 관계로 볼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풀’과 ‘바람’을 호혜적 관계로 보는 논자들 역시 ‘풀’과 ‘바람’의 관계 설정에는 설득력을 얻지만 앞서 제시한 의문점과 시어의 반복성, 대립성, 운동성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해석상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음양(陰陽)적인 상상력을 따라가면 논리적인 해명이 가능해진다. 음양(陰陽)적인 관점은 다양한 자연 현상, 혹은 인간사의 표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체계이기 때문이다.

「풀」의 제1연을 지배하는 ‘억압’의 이미지는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가면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혹은 성장을 위한 긍정적 시련임을 알 수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운동성은 일방적인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을 방해하는 ‘억압’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역(易)에서<sup>20)</sup> 음양(陰陽)운동이란 우주 자연에 있는 만물은 ‘억압’ 혹은 ‘분발(반발)’로 대립하는 가운데 ‘교감’하며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억압’과 ‘분발(반발)’은 상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자양의 원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음양(陰陽)적 상상력에 따르면, ‘풀’은 목(木)의 성

19) 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문학과지성사, 1976, 157쪽.

20) 역에는 易簡(이간)·변역·불역(不易)의 세 가지 뜻이 있다. 이간이란 천지의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나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뜻이며 변역이란 천지만물은 멈추어 있는 것 같으나 항상 변하고 바뀐다는 뜻으로 양(陽)과 음(陰)의 기운(氣運)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불역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나 그 변하는 것은 일정한 항구불변(恒久不變)의 법칙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법칙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누를수록 내부에 축적된 음(陰)의 기운이 압축되어 생명력이 강화된다. 음양(陰陽)적인 관점에서 보면 ‘풀’과 ‘바람’은 남·녀 관계처럼 양(陽)인 ‘바람’이 음(陰)을 만나기 위해 하강함으로써 억압되지만 ‘풀’은 싫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다. ‘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갑고 기쁘다. 그 이유는 2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람은 ‘풀’의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기 때문이다. 좋으면 웃지만 너무 좋으면 운다. ‘풀’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거나 날이 흐려야 한다. 그런데 바람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리니 너무 짧고 아쉽다. 1연에서 풀이 눕고, 우는 이유와 날이 흐린 날 다시 눕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처럼 음양(陰陽)적인 상상력을 따라가면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인 ‘바람’을 기다리는 ‘풀’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상호 제약(制約) 속에서 끊임없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변전하는 자연운동을 음양(陰陽)의 동정(動靜)운동이라 하는데 이것이 발전이다.

이상에서처럼 풀의 제1연에 나타난 억압의 이미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분발 혹은 발전(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시련이다. 모든 생명체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지향하지만 현실에 눌러 살기 때문에 소생을 꿈꾸며 움직이고자 하며 그것이 삶이다. 화자가 ‘풀’의 동정(動靜)운동을 유달리 응시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 제2연 -‘분발(반발)’의 이미지-(陽)

「풀」의 제1연에서 양(陽)인 ‘바람’은 음(陰)인 ‘풀’을 만나기 위해 하강함으로써 ‘억압’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제2연에서는 음(陰)인 ‘풀’이 양(陽)인 ‘바람’을 만나기 위해 상승함으로써 ‘분발(반발)’하려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 ‘반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스르고 반항하는 것을 말한다. 분발은 놀리어 가라앉은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풀」의 제2연에는 ‘억압’의 반대인 ‘분발(반발)’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풀」의 제2연에 투영된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 가 보기로 하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풀」 -의 제2연

「풀」의 제2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풀’이 ‘바람’이라는 물리적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논자들은 ‘풀’의 강인함이나 능동성에 해석의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문제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풀’이 움직임의 동력이 되는 ‘바람’보다 행위가 앞서는 모순에 대한 해석상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풀’과 ‘바람’을 적대적 관계로 보는 입장과 호혜적 관계로 보는 두 입장 모두를 해 해석상의 난제에 부딪치게 한다. 원인은 ‘~보다’, ‘더 빨리’, ‘먼저’ 등의 부사적인 시어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 가는 수밖에 없다.

제2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1행과 2행에서 ‘눕는다’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반복이 연속되는 상태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시의 구조나 시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상으로 보면 ‘풀’은 눌린 만큼 솟아오르는 용수철에 비유되는 목(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누를수록 내부에 축적된 음(陰)의 기운이 압축되어 생명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누워야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1행에서도 눕고, 2행에서는 더 빨리 눕는다. 마지막 행에서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2행과 3행에서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며 분발(반발)했기 때문이다. 분발(반발)의 이미지는 동사보다 부사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 만물이 그러하듯 음(陰)인 풀은 양(陽)인 바람을 만나야 생명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놀리어 가라앉은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속성을 지닌 양(陽)인 ‘바람’을 만나기 위해서 음(陰)인 ‘풀’은 온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야한다. 음(陰)과 양(陽)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생명력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음양(陰陽)의 이치이다. 그래서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고, 더 먼저 일어난다. 이처럼 제2연에서 더, 빨리, ~보다도, 먼저 등의 부사가 유독 자주 사용되는 것은 화자의 음양(陰陽)적인 상상력 때문이다. 양(陽)인 ‘바람’을 만나면 음(陰)인 ‘풀’의 생명력이 더 단단해지는 것은 음양(陰陽)의 이치이다. ‘풀’은 바람(陽)을 만나야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을 통하여 실존적인 존재의 뿌리를 땅 속 깊이 박을 수 있다. 그러나 ‘풀’이 ‘바람’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분발(반발)함은 당연한 것이다. ‘더 빨리’ ‘먼저’라는 부사어는 ‘풀’이 바람과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를 잘 보여주는 시어이다.

이상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 가 본 결과 제2연에서의 ‘풀’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람보다 더, 빨리,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람과 만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풀」의 제1연에서 드러난 ‘억압’의 이미지와 제2연에서 드러나는 ‘분발(반발)’의 이미지는 고통이 아니라 상호 제약(制約)과 자생(自生)관계 속에서 발전(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시련이다. 이는 제2연을 지배하는 ‘분발(반발)’의 이미지는 화자의 내면세계에 흐르는 실존적인 삶의 고뇌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 3. 제3연 ‘교감(조화)’의 이미지 - (陰+陽)

제3연에서 ‘풀’은 이제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풀이 눕고,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과 접촉하였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다. 풀이 울고, 웃는다는 것은 바람과 서로 감정을 교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3연은 ‘교감(조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언술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풀(陰) ↔ 바람(陽), 늦게(陰) ↔ 먼저(陽), 눅고(陰) ↔ 일어나고(陽), 울고(陰) ↔ 웃는(陽) 음양(陰陽)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못을 박을 때도 강약을 겸하여 때려야 잘 박히듯 우주 자연의 모든 것은 음양(陰陽)을 겸전해야 한다. 이 말은 만물이 감응을 받아 생멸(生滅)의 순환 운동을 할 때는 음양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음양(陰陽)교감의 결과는 새로운 탄생이 아니면 성장과 발전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풀」의 제3연을 살펴보도록 하자.

날이 흐리고 풀이 눅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눅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눅는다

「풀」의 제3연

제3연의 분석을 위해 응시해야할 부분은 첫째, 바람 ↔ 풀, 눅고 ↔ 일어나고, 울고 ↔ 웃는다. 늦게 ↔ 먼저 등의 시어들이 대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둘째는 풀이 발목 → 발밑 → 풀뿌리(땅속)까지 점층적으로 눅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셋째는 첫 행과 마지막 행에서 공통적으로 ‘날이 흐린 날 눅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음양(陰陽)적인 상상력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먼저 풀 ↔ 바람, 눅고 ↔ 일어나고, 울고 ↔ 웃는다. 늦게 ↔ 먼저 등 시어가 대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대립적인 시어는 대

부분 전자는 음(陰)이고 후자는 양(陽)으로 구분된다. 음(陰)과 양(陽)은 대립되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대의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sup>21)</sup> 일음일양의 양상을 달리 표현하면 음양교감(조화)이라 한다. 그런데 제3연에서 보이는 시어의 대립성은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양상과 일치하고 있다.<sup>22)</sup> 음양(陰陽)조화의 결과는 새로운 탄생이 아니면 성장과 발전이다. 「풀」의 제3연에서 시어가 대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풀」 시 전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풀이 눕는’ 이유를 살펴보자. 특히 3연에서의 ‘풀’은 앞의 연과는 달리 발목 → 발밑 → 풀뿌리(땅속)까지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눕는다. 눕는 행위는 얼마나 생산적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음양(陰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눕는다는 것은 것은 휴식이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므로 희망이다. 음양(陰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눕는다는 것은 음(陰)의 상태이고 음기(陰氣)가 가장 강한 것은 물(水)이다. 「풀」은 유달리 시편 전체에서 눕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유는 수생목(水生木), 즉 목(木)인 ‘풀’은 수(水)를 바탕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3연에서의 ‘풀’은 앞의 연과는 달리 발목 → 발밑 → 풀뿌리(땅속)까지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눕는 이유는 무엇인가? 눌린 만큼 솟아오르는 목(木)의 성질과 극즉반의 원리를 화자가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목이나 발밑까지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풀’이지만 용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발목 → 발밑 → 풀뿌리로 하강하여야 한다. 이처럼 「풀」은 오행 중에서 목(木)이 지니는 성질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해석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21) 태양과 달은 서로 정확히 정반대가 되지는 않지만 태양은 낮의 빛이고 달은 밤의 빛이기에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다.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도서출판 하원정, 2009. 49쪽.

22) 음양철학의 근본을 규정하는 구절이 일음일양이다. 『주역』의 계사전에 나오는 이 말의 뜻은 ‘우주의 운동은 한번 음(陰)하고 한번은 양(陽)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수미쌍관식 구성법을 응용하고 있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는 시구를 응시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연에서 사용된 시어를 면면히 살펴보면, ‘풀’도 음이고 ‘눕는다’도 음(陰)이고 흐린 날도 음(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행과 마지막 행에서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는 시구를 반복하는 이유 역시 음기(陰氣)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융출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제3연에서의 ‘풀’은 풀뿌리까지 누움으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하지만 희망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극즉반의 원리에 따라 순환·발전할 수 있다는 음양(陰陽)적인 상상력의 덕분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풀」에 나타난 음양(陰陽)적 상상력의 핵심은 눌린 만큼 융출하려는 木(풀)의 동정(動靜)운동이었다. 생명체란 역동적인 것이기에 한시도 정체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발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방해요소인 ‘억압’과 전진하려는 모습인 ‘반발’이 모순과 대립하는 가운데 조화한다. 인간도, 인간이 만드는 인간사도 음양의 조화를 지향한다. 음양(陰陽)의 조화는 생명체인 ‘풀’의 온전한 건강성을 반영하고 창조한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도 음양(陰陽)의 균형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안정된 상태를 꿈꾸며 불완전한 여정 속에서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삶이기도 하다.

#### IV. 결론

이상 본고에서 음양(陰陽)적 상상력을 따라 가 본 결과 ‘풀’과 ‘바람’의 관계는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적대적이지도 않았고, 공·맹에서 보는 것처럼 일방적이지도 않았다. ‘풀’과 ‘바람’은 남·녀 관계처럼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교감(조화)하는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영의 시 「풀」에서 음양(陰陽)적 상상력의 핵심은

‘눌린 만큼 용출하는 木(풀)의 동정(動靜)운동’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발전적 변화를 일으킬 때 방해요소인 ‘억압’과 전진하려는 모습인 ‘분발(반발)’이 모순 → 대립 → 조화를 반복하는 동정(動靜)운동을 한다. 김수영의 「풀」에서 보이는 동정운동은, 바람(陽)은 풀(陰)을 만나기 위해 하강(억압)하고 풀(陰)은 바람(陽)을 만나기 위해 상승(분발)하는 가운데 교감(조화)한다. 음양(陰陽)조화의 결과는, 새로운 탄생이 아니면 성장(발전)이다. 이는 ‘풀’의 운동성이 불러일으키는 생명감’의 원천은 음양(陰陽)적 상상력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음양(陰陽)적인 관점은 ‘풀’이 상징하는 것이 민중, 여성, 시인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일지라도 실존적인 존재의 새로운 탄생이나 성장 혹은 희망을 암시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풀」에 투영된 음양(陰陽)적 상상력은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실존적 존재의 성장을 암시함으로써 소묘적 회화성 이면에 있는 은유적 세계관을 명료하게 보여 주었다. 화자의 시선이 줄곧 ‘풀’의 운동성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삶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발화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나아가 음양오행(陰陽五行)적 관점은 「공자의 생활난」으로 출발한 김수영의 유가적 시창작 태도가 마지막 작품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김수영은 모더니즘 시인이라 불리지만 전통을 부정하는 시인이 아니라 전통 계승적 창작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김수영 문학 혹은 한국시사에서 갖는 의미도 적지 않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수영, 『김수영 전집 1(詩)』, 민음사, 2005.  
김수영, 『김수영전집 2(산문)』, 민음사, 2005.

### 2. 단행본

- 김종윤, 『김수영 문학연구』, 한샘출판주식회사, 1994.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도서출판 하원정, 2009.  
최동호, 『다시 읽는 김수영 시』, 작가, 2005.  
최병주, 『음양오행의 원리』, 資文閣, 1993.  
한동석,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2001.  
조병춘, 『한국현대시 평설』, 태학사, 1995.

### 3. 논문 및 평론

- 김동환, 「김동리 소설의 상상력 연구 음양오행사상의 시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99쪽.  
김춘수·박진환, 『한국의 문체시·명시 해설과 감상』, 자유지성사, 1998,  
131~287쪽.  
김현, 「웃음의 체험」, 황동규 편, 앞의 책, 206~212쪽.  
맹문제, 『한국민중시 문학사』, 박이정, 2001, 94~99쪽.  
백낙청, 「참여시와 민족문제」, 황동규 편, 같은 책, 166~172쪽.  
성민엽, 「김수영의 「풀」과 『논어』」, 『현대문학』533, 1999. 66~79쪽.  
송승환, 『한국현대시 분석과 이해』, 우리문학사, 1997, 110~127쪽.  
신용목, 「시론으로서의 시, 김수영의 「공자의 생활난」」, 『다시 읽는 김수영 시』, 도서출판 작가, 2005, 14~37쪽.  
신진, 「정지용 시의 색채 이미지 고찰-음양오행을 통한 原型研究試論-」,

-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제6집, 1982, 21~42쪽.
- 오세영, 「우상의 가면을 벗겨라」, 『어문연구』, 2005, 봄, 155~172쪽.
- 유종호, 「시의 자유와 굴레」, 황동규 편, 같은 책, 257쪽.
- 염무용, 「김수영론」, 『김수영의 문학』, 황동규편, 민음사, 1983, 139~165쪽.
- 이정재, 「陰陽五行論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문화연구』7집, 2003, 175~200쪽.
- 장동순, 「五行이론의 科學性」, 『의림』 262, 2000, 30~175쪽.
- 정효구, 「정지용의 시 ‘향수’와 음의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제19호, 2007, 239~269쪽.
- 조선숙,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본 이상의 소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67쪽.
- 최동호, 「동양의 시학과 현대시: 유가철학과 김수영의 <풀>」, 『현대시』 10, 1999. 19~33쪽.
- 조명제, 「김수영의 시 「풀」의 구조와 시적논리」, 『어문논집』, 24, 1995, 69~84쪽.
- 한계전, 「김수영」, 『한국 현대시 해설』, 관동출판사, 1994. 126쪽.
- 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문학과지성사, 1976, 121~157쪽.

<Abstract>

## Imagination of Yin-Yang described in Kim, Soo-young's "Grass."

Lee, Jong-Ok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magination of Yin-Yang for several reasons. First, Kim, Soo-young's poem, "Grass," is important in that most discussions to explain his poetic characteristics have been conducted around that poem. Next, his works themselves are both the world and symbols which promote 'an imagination of Yin-Yang' in that the same nouns and verbs, which resemble the cycle of Yin-Yang characterized by circulation and repetition, are repeated continuously. Particularly, though the dynamics shown in the transformation of 'lying -> crying -> laughing' and the repetition or the comparison of 'lying↔ standing up' or 'crying ↔ laughing' has the form of one-Yin and one-Yang,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Yin-Yang's movement of repetition and comparison, it is hard to find explanations about his poetic world which are suggested in terms of Yin-Yang

The core of the imagination of Yin-Yang described in "Grass" is the movement within stillness. Everything in the universe encompasses both 'promotion,' the shape of progress, and 'repression,' the disturbing factor, when they make developing changes; they do a movement within stillness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repetition of 'contradiction → comparison → harmony.' His poem "Grass" shows a

movement within stillness in that both Yin and Yang consensually respond to each other, while, on the one hand, “wind” (Yang) intends to descend (repression) to meet “grass” (Yin), on the other hand, “grass” (Yin) intends to ascend (promotion) to meet “wind” (Yang). The result of the harmony (connection) between Yin and Yang is a new birth or growth and development. In this sense, it can be thought that, on the basis of the imagination of Yin-Yang, Kim, Soo-young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existential beings’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struggles in lives encompassed in images of ‘repression,’ ‘promotion (resistance),’ and ‘consensual response (responsive action).’ The imagination of Yin-Yang reflected in “Grass” enables us to see the essence of life that is expressed in his inner world. In this context, “Grass” shows his perception of reality or the response to the reality embedded in the image of grass field. The poetic speaker in “Grass” continuously gazes the movement of ‘grass.’ It implies that the reality which the poet tries to reveal is human struggles in real lives. Thus, the tranquility of existential beings is inevitable result. That is, what his inner world pursues is to rebirth into a new subject that can secure a sense of safety. Additionally, the perspective of Yin-Yang and Five Element Theory that is based on I Ching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es that Kim, Soo-young’s Confucian attitude of poetic creation, which was derived from Confucius’ hard living, was continued to his final work. It suggests that, though he is called a modernism poet, he created his works in terms of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 not in terms of the denial of the tradition. These points are meaningful in Kim, Soo-young literature and the history Korean poem.



Key Words : imagination of Yin-Yang, Yin-Yang and Five Element Theory, repression, promotion (resistance), and consensual response (responsive action).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